

<Bio Korea 2007> 9월12 COEX 개최

산업자원부는 국내 바이오기술의 상용화 및 수출산업화 지원, 신기술 정보 교류를 위한 <Bio Korea 2007>을 9월 12-14일 COEX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.

전시회·컨퍼런스·비즈니스 포럼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 행사에는 Pfizer, 베링거인겔하임(Boehringer Ingelheim), Merck, Lilly 및 종근당, 한미약품, LG생명과학 등 바이오분야 국내외 대표기업 400사와, 1000여명의 해외 바이어·투자자를 포함해 약 2만명의 바이오산업 관계자들이 참관할 예정이다.

산업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 후원하고, 한국무역협회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충청북도가 공동 주최하는 행사는 9월12 오전 10시 COEX 3층 컨벤션홀에서 김영주 산자부장관, 변재진 복지부장관, 정우택 충청북도 도지사 및 무역협회·바이오산업협회 등 바이오업계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개최될 예정이다.

약 230사 360여개 부스로 구성된 전시회에는 국내 대표 제약기업인 한미약품, 종근당 및 중외제약 등과 세계적 다국적 제약사기업인 Pfizer, Merck 등이, 그리고 국내 대표 바이오기업인 LG생명과학, 마크로젠, 세원셀론텍 등이 참가하며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이스라엘, 스코틀랜드 개발청이 국가관을 구성하고, 국내 18개 바이오 클러스터 및 11개 지자체가 홍보관을 구성하는 등 국내외 정부 및 지자체가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.

비즈니스 포럼은 기업설명회와 파트너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데 국내 동아제약, SK케미칼, LG생명과학 등이 다국적 제약기업을 통한 해외 진출 및 연구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.

<화학저널 2007/09/11>